진정한 참회는 '개과천선'

〈改過遷善〉



新 불교사자성어

㉗ 이참사참(理懺事懺)

'이참사참(理懺事懺)' 은 이치적으로도 참회하고 행동적으로도 참회한다는 뜻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으로도 참회(理懺)하고 실천적 행동적으로도 참회해야만(事懺) 진정한 참회가 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이다. 동시에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잘못을 뉘우쳤다고 하더라도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닌 것이다.

이참사참(理懺事懺) 등 참회는 '개과천선(改過遷善)' 의 반성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고 동시에 개과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참회하는 구참(口懺)이고, 겉으로만 참회하는 '눈가림 참회' 라고 할 수 있다.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한다면 자신의 인성만 점점 악화시켜서 더 큰 실수나 파계 등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불교에서는 참회의 방법으로 주로 부처님 앞에 108배를 하는 '108참회' 를 많이 한다. 또 3천배도 있다. 108배, 3천배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한다. 그런데 겉으로는 108배, 3천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두고 보자' 라는 식도 있다. 그것은 악을 기르는 것이다.

인도불교에서는 매달 보름날(15일)과 그믐날(30일)에 대중들이 모두 모여서 계율을 한 조목씩 읽고 그것을 범한 사람은 대중 앞에서 고백, 참회하는 의식이 있다. 이것을 '포살(布薩)' 이라고 한다. 또 '자자(自恣)' 라고 하여 안거(安居, 결제)가 끝나는 날 저녁에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식도 있다.

'지과필개(知過必改)' 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허물, 단점, 잘못을 알았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말인데, 이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무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고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 발전하지 못한다. 60살이 되어도, 80살이 되어 죽을 때가 되어도 똑같다. 이런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포맷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참회는 잘못된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이다. 나쁜 마음을 정화하여 착한 마음으로 고치는 기능이다. 정수기가 물을 정화하고 정화조가 화장실을 정화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참선, 위빠사나 등 수행의 목적도 마음(번뇌심)을 정화하는 데 있다. 증오심이나 분노 등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수행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 수행자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런 수행자는 일반인만도 못하다.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에서는 먼저 자비송(자비스러운 싯구)을 외운다. 자비심이 마음을 정화해주기 때문이다.

참회가 없는 수행은 '허상' 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참회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참회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 분노, 증오, 등 좋지 못한 생각 등 악심(惡心)들이 정화되고 순화된다. 마음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 진다. 그것이 '개과천선(改過遷善)' 이다.

〈천수경〉에는 참회게가 있다. "내가 지난날 지은 모든 악업, 모두 '탐 · 진 · 치' 때문이었네. 신구의로 지은 죄를 지금 모두 참회합니다"라는 싯구는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할 싯구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1817~1875)의 참회록이 있다. 자신의 젊은 날을 참회한 기록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나쁜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등 갖가지 나쁜 짓을 했는데, 그는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도대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오열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인가?'

톨스토이는 참회록을 통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난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이 반성을 토대로 '참되게 살기' , '바르게 살기' 에 올인했다. 〈전쟁과 평화〉 등 명작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참회와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회와 반성은 철저한 자기비판과 성찰에서 출발한다. 치열한 참회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조주에게 생긴 '옥의 티'



격절록 강설

㉗ 설봉고간 평창 3

[評唱 3]

只如 雪竇道 "如斯話會 深屈古人" 且道 是屈 是不屈. 懷和尚道 "作麼生會不答話底道理. 讚歎趙州即不無 還知趙州一片玉瑕生麼. 若點檢得出 相如不誑於秦王" 雪竇分明拈了也. 而今人却不去見趙州雪峯 却走去咬雪竇語句 去語脈上走 不知他雪竇一手擡 一手搦. 且道 阿誰是斬釘截鐵本分宗師. 阿誰是就下平高難為作者. 到這老直饒辨得去 也只是語脈上走

설두가 말했다.

"(대중이 모두 말하기를 '설봉은 이 스님의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조주가 긍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한다.) 이와 같은 말은 고인을 몹시 억울하게 하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억울하게 한 것인가, 억울하게 하지 않은 것인가?

회 화상(懷和尚, 천의의회)이 말했다.

"(설봉이) '대답하지 않겠다' 고 한 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조주를 찬탄한 것인 즉 없지는 않으나, 조주에게 한 조각 옥의 티가 생긴 것을 알겠는가? 만약 이를 점검해낸다면 상여(相如, 인상여)가 진왕(秦王)을 속이지 못했을 것이다."

설두는 분명하게 염(拈)을 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도리어 조주와 설봉이 만난 곳엔 가지 않고, 설두에게 달려가서 설두의 어구(語句)나 씹고 어맥(語脈)에만 치달리니, 저 설두가 한 손으로는 들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내리누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못을 끊고 쇠를 자르는(斬釘截鐵) 본분종사(本分宗師)가 누구인가? 누가 낮은 곳을 취하여 높은 곳을 고르기에 작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인가? 이 늙은이에게 와서 설사 분명하게 가려낸다하더라도 역시 다만 어맥에서 치달리는 것일 뿐이다.

❋천의의회(天衣義懷, 993~1064): 송대(宋代)의 스님. 운문종. 30세에 출가하여 법화지언(法華志言)에게 참학하고, 또 금란 선(金鑾善)과 섭현귀성(葉縣歸省)에게 참학한 후, 취봉사(翠峰寺) 설두중현(雪竇重顯)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음.

❋사기(史記)의 상여전(相如傳)을 참조하기 바란다.

❋선문염송집 고칙 785에서는 본 설봉고간화(雪峯古澗話)에 대한 원오의 송(頌)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趙州象骨嗣 조주와 상골암(설봉)!

擧世無倫擬 온 세상에 견줄 사람 없네.

共撫沒絃琴 줄 없는 거문고(沒絃琴)를 함께 타고

千載淸人耳 천 년이나 사람들의 귀를 맑게 하네.

古澗寒泉 옛 골짜기의 찬 샘물

瞪目疑然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봐도 의심스럽고,

不從口入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飮者忘筌 마시는 자는 통발을 잊어버리네.

重出語苦叉死 거듭 말을 해서 쓰다 하고 죽는다 하지만

不答話同彼此 답하지 않은 것은 서로 같으니

相逢兩會家 두 대가(兩會家)가 서로 만나

打鼓弄琵琶 북 치고 비파를 뜯네.

个中誰是的 이 중에 누가 분명한가?

白馬入蘆花 백마가 갈대꽃 속으로 들어가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㉗ 이해의 길 7

연기적 사유는 인간의 책임

초등학교 시절 각 교실에는 급훈이 담긴 하얀 액자가 걸려있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급훈으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근면이나 성실, 정직과 같은 가치였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긴 단어들이다. 어찌 보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겼던 70년대 산업사회에 꽤나 잘 어울리는 덕목이다.

그런데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들도 사유(思惟)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해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1962)이다. 1961년 12월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그는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강변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에 미국 잡지인 〈뉴요커〉의 요청으로 재판을 취재한 여성이 있었다. 바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이란 유명한 말을 탄생시킨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다. 그녀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로 독일에서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철학자다. 그녀는 천인공노할 아이히만의 악행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위해 그를 집중 취재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순전한 무사유 (sheer thoughtlessness)' 였다."

아렌트의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녀는 이러한 무사유가 인류의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했다. 그녀에게 비친 아이히만은 성실하고 정직한 관료였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을 좋아하는 친절하고 정직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아픔과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렌트의 판단이다.

그녀는 사유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즉, 자신의 행동이 세계에 끼칠 영향과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사유가 결여된 근면이나 성실, 정직과 같은 가치들이 엄청난 악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하게 되면 악은 언제든지 평범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렌트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생각 없이 던진 한 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선행이 상대에게 위로나 용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유는 책임이라는 아렌트의 통찰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아렌트의 철학과 불교의 연기적 사유는 서로 통하고 있다. 인간과 세계를 독립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불교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메시지는 나와 세계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상을 깨쳐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동체자비(同體慈悲)를 강조하는 것도 이것을 깨쳤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기의 진리에서 사유의 의미와 책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곧 문제의식을 갖고 오늘에 맞게 불교를 해석하는 일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한다면 아이히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안에도 꽤 많은 아이히만이 잠자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 성찰해 볼 일이다. 연기의 진리는 잠들어있는 우리의 삶(生)을 일깨우는(覺) 혁명적 사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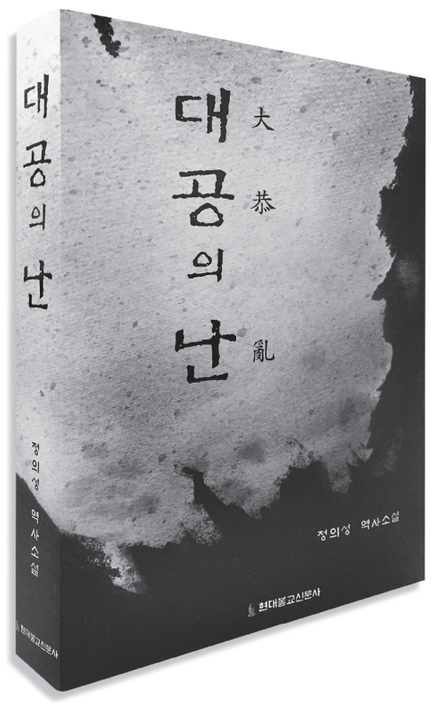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